

2023. 10. 30.(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2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관광산업과장	김가영	2133-2770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이수양	2133-2792
담 당 자	이두영	2133-2783
담 당 자	이혜주	2133-2796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5쪽

## 서울시 저가·덤핑 관광 근절을 위한 불법가이드 단속 실시

- 저가·덤핑 관광 해결을 위해 중구(10.12), 종로구(10.26) 일대 단속 및 캠페인 실시
- 불법 행위가 확인된 가이드 및 고용업체에는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처분 가능
- 10월 한달간 캠페인 진행 후 면세점·아울렛 등지에서 불시 단속 예정

### < 단속 사례 >

1. 베트남 단체관광객을 인솔하던 베트남인 가이드에게 자격증 확인을 요청하자 본인은 관광객이라며 자리를 이탈 후 주변을 배회
2. 20여분 경과 후 단체관광 버스에 탑승한 가이드에게 재차 자격증 제시 요청
3. 가이드 및 버스 기사에게 소속 여행사와 여행지시서를 요구하였으나 계속 거부
4. 10여분 경과 후 베트남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소지한 가이드가 현장에 도착하여 본인이 가이드임을 주장
5. 시팅 가이드에게 진술서 작성 요청 후 상황 종료

최근 가이드의 쇼핑 강매로 인한 관광객과의 마찰 등 저가·덤핑 관광 기승으로 인한 문제점이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 가이드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서울시는 10월 한달 간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명동·청계천 등지에서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한 가두행진 및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 저가·덤핑 관광 투어를 모집하는 일부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현지 파견 TC(국외여행인솔자·tour conductor), 한국 거주 외국인 등을 가이드로 고용하여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쇼핑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제공함에 따라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무료 관광지 한두 곳을 방문 후 쇼핑센터로 내몰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덤핑 관광 업체는 쇼핑 실적이 좋은 불법 가이드 고용 후 단속을 대비하여 자격증을 보유한 ‘시팅 가이드’를 대기시키기도 한다.
- 이러한 위법한 관행은 서울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어렵게 회복세에 든 관광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관련 단체도 뜻을 모아 이번 캠페인에 나섰다.
-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와 종로구, 관광경찰 뿐 아니라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서울특별시관광협회 등 유관단체도 함께 참여하여 위법한 관행 근절을 위한 여행업계의 자정노력을 보여주었다.
- 이번 단속에서는 가이드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 30여명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무자격 가이드 1명 및 시팅 가이드 3명의 진술서를 확보하였다.

- 적발된 불법 가이드에게는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및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800만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이 가능하다.

□ 또한, 12일 중구와 26일 종로구에서 진행된 캠페인에 이어 마포구에서도 10월 중 후속 캠페인과 점검을 진행한다.

- 캠페인 기간 종료 후에는 단체관광객이 주로 찾는 서울 시내 면세점, 아울렛, 쇼핑몰 등지에서 불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관광하기 좋은 계절이 되어 서울시를 찾는 관광객은 연말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시를 찾은 관광객들이 좋은 추억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불법 관행 근절과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캠페인 진행 사진 1매.

2. 캠페인 홍보자료 1매. 끝.



< 건전 관광질서 캠페인단 >



<조회 어플 통해 자격증 확인>



< 가이드 여행지시서 확인 >



<가두행진 캠페인>

리플릿



**관광진흥법 위반 불법행위 신고처**

명동	02-700-6276
관광경찰 개방형센터	홍대 02-700-6278 이태원 02-700-6195 동대문 02-700-6296 중구 02-3396-4633
서울 자치구	종로구 02-2148-1864 마포구 02-3153-8665
여행자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85(삼일빌딩 앞) *운영시간 : 10:00 ~ 19:00
부당요금 피해 현금보상 서비스	☎ 1800-9008 여행자지원센터 / tcc@sta.or.kr - 보상대상 : 외국인관광객(한국체류기간 1개월 미만) - 보상지역 : 관광특구에 한함 (이태원, 명동, 남대문, 북창동, 동대문패션타운, 종로창계, 다동 및 무교동) - 보상내용 : 쇼핑, 음식, 숙박으로 인한 부당요금 보상 - 보상한도 : 1인 최대 50만원(피해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 시)



**무자격 관광 안내, 무등록 여행업 퇴출하여 건전한 여행 풍토 조성에 동참합시다!**

**A tour guide in Korea MUST have a license. Does your tour guide have a license?**



1330 관광통역안내

- 상담가능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 이용시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24시간, 연중무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08:00~19:00 연중무휴



무자격가이드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패용**

관광통역안내사는 업무 수행 중에는 반드시 자격증을 패용해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8조 제7항



**관광통역안내사 유자격자 고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반드시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8조 제1항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대여 행위 금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8조 제8항

**과태료, 과징금 및 행정처분(등록취소 등)**

- 가. 과태료(무자격자 대상)**
- 1) 관련 규정 : 관광진흥법 제86조 제1항 제2호
  - 2) 부과 기준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
- 나. 과징금(여행사업자 대상)**
- 1) 관련 규정 : 관광진흥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2) 부과 기준 : 종합여행업 800만원, 국내여행업 400만원
- 다. 행정처분(여행사업자 대상)**
- 1) 관련 규정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2) 부과 기준 :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
- 라. 관광진흥법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2. 제38조 제8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HDV của Hàn Quốc cần phải có bằng! HDV của bạn có bằng không?**



**ไกด์เกาหลีต้องการใบรับรองค่ะ ไกด์ของคุณมีประกาศนียบัตรไหมคะ**



**Pemandu wisata Korea, (Wajib berlicense.) Apakah pemandu wisata Anda berlicense?**



**大韓民國要求導遊必備 合法證件 您的導遊是國家認可的導遊嗎?**